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

이 재 창 박 미 진[†]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 실제적인 수행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데 적용되어 온 계획행동이론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을 추가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모형은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2개월 후의 실제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검증결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기회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또한 2개월 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 진로정체감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의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2개월 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진로지도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에는 내용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와 영향변인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청소년의 진로, 계획행동이론, 진로탐색행동, 진로정보탐색행동

* 이 논문은 박미진의 박사논문 일부를 수정하거나 발췌한 것이며 박사논문은 2005년도 신진연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5-908-B00056).

[†] 교신저자 : 박미진,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실,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Tel : 02-320-1356, E-mail : meejini@hanmail.net

인간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의식주의 해결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로는 개인이 일생동안 겪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으로 진로문제는 개인의 생애전반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진로발달단계상 탐색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발달과제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 즉, 앞으로의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다양한 정보와 접하는 탐색은 그들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진로문제는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을 통해 해결된다. 진로결정의 기본과제는 자기이해와 직업정보탐색이다. 자신의 흥미, 가치, 성격, 적성 등과 같은 자기이해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자기이해도 결국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에 정보의 습득으로 보아 이를 자기정보라 할 수 있다. 자기정보와 함께 진로결정에 앞서 탐색되어야 할 정보영역은 일의 세계와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인 직업정보이다. 직업정보에는 작업환경, 고용기회, 임금,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자기정보와 직업정보는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자원이 된다. Killeen과 Kidd(1991)는 이러한 진로정보가 자기이해와 직업기획인식이라는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Parsons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요건을 일치시키려 하였다. 특성-요인이라 불리는 Parsons의 이론은 진로이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며 기본적으로 개인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rites(1976)에 따르면 직업발달은 직업인

식, 탐색, 선택 및 입직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직업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접근방식과 상관없이 직업정보가 진로선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Hartung(1996)도 주요 진로발달 및 선택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진로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진로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Super(1975)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광범위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진로탐색이란 주로 개인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인지적 접근의 연구에서도 정보탐색에서의 능력기대(자기효능감)와 중요목표 및 방향이 중요한 설명개념이라고 주장한다(Betz & Luzzo, 1996; Betz & Vuyten, 1997; Blustein, 1989).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많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질의 정보를 구분하고 활용하는 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정보 역시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진로정보제공 사이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의 활용이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의 주요 방법이 되고 있다(임은미, 장선숙, 2002). 따라서 청소년들이 양질의 정보를 얼마나 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진로문제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내용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 된다.

필요한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진로정보탐색 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에 포함되어 설명되어 왔다. 즉, 진로를 선택·준비 하거나 취업한 후의 적응과 개선을 위하여 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수행하는 활동 중 하나로 진로정보탐색행동이 다루어져왔다. Moreno와 Taveira(2000)는 진로탐색행동의 개념

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진로탐색행동을 진로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information-seeking behavior)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소개하였다. Moreno와 Taveira(2000)는 이러한 관점이 가장 초기의, 단순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정보수집활동은 진로탐색의 대표적인 행동이며(서진숙, 1998; 최동선, 2003),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rumboltz와 Schroeder(1965)는 진로정보수집행동을 자신의 미래의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Stumpf, Colarelli와 Hartman(1983)에 의하면 적절한 진로정보의 획득을 개인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유목적적 행동 및 인지로 정의하고 있다.

Dreher와 Dreher(198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적 준비 활동은 정보 수집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수집은 자신의 능력, 흥미, 목표, 목표 달성 전략을 고려하는 내적 탐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기회의 탐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은 진로관련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친구들과 대화하기,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험 쌓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학교에서 직장에 취업하기 1년 전의 청소년 중 자신이 흥미와 직업 기회에 대해 더 나은 정보나 지지를 가졌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시간이 갈수록 탐색이 더 증대되는 경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리, 2005). 따라서 정보수집행동은 진로상담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담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진로상담가에게도 이해가 필요한 실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으로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고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 진로정보탐색행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탐색 과정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측정도구들은 입직을 바로 앞둔 대학생이나 직업경험을 가진 성인과 청소년간에는 서로 요구되는 정보와 필요한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에 제한이 크다. 따라서 진로선택을 위한 청소년의 진로관련 행동으로 진로정보탐색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하고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로정보탐색행동이 수행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변인간의 관계 검증과 행동수행 예측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계획행동이론이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과 같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예언하는 이론으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행동을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보아왔던 태도가 행동을 항상 예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하려면 태도와 행동 이외에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Ajzen과 Fishbei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이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행동의 결정요인을 행동에 대한 태도보다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았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행

동의 결정요인인 의도는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가치 혹은 중요성을 나타내는 태도와 주변의 중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이후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시켜 행동이 개인의 통제력 하에 있지 않은 상황 즉, 행동수행에 능력이나 기술, 정보, 시간적 여유와 같은 필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행동도 설명이 가능한 계획행동이론(TPB)을 제안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현재 개인의 통제력에 있지 않은 행동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도록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추가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변인인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행동이론(TPB)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예측되고 의도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변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추가된 변인인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획행동이론은 운동(김영호, 2005; 이미라,

2001; Payne, Jones, & Harris, 2005; Rive & Sheeran, 2003; Rhodes & Courneya, 2004), 음주행위(권선중, 2002; 차동필, 2005), 흡연행위(권선중, 2002; 김영래, 2004; 이혜원, 2005; 지연옥, 1994; Harakeh, Scholte, Vermulst, de Vries, & Engels, 2004; Moan & Rise, 2005), 온라인 구매행동(김명소, 한영석, 2001; 최동성, 2003; 최자영, 김경자, 2003), 인터넷 게임행동(권선중, 김교현, 2004; Doll & Ajzen, 1992) 등 다양한 사회행동이나 건강행동을 예측하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행동뿐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양성평등행동(김명소 등, 2004), 학업유지(Davis, Ajzen, Saunders, & Williams, 2002), 갈등관리행동(Shapiro & Watson, 2000) 등에 대한 적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Giles와 Rea(1999), Millar와 Shevlin(2003), van Hooft, Born, Taris와 Van der Flier(2004), van Hooft, Born, Taris, Van der Flie와 Blonk(2004), Wanberg, Glomb, Song과 Sorenson(2005), van Hooft, Born, Taris, Van der Flie와 Blonk(2005), Song, Wanberg, Niu와 Xie(2006), Shevlin과 Millar(2006), Arnold 등(2006) 등 구직자들의 구직행동과 청소년의 진로탐색행동 등에도 적용되어 진로 및 직업분야까지 영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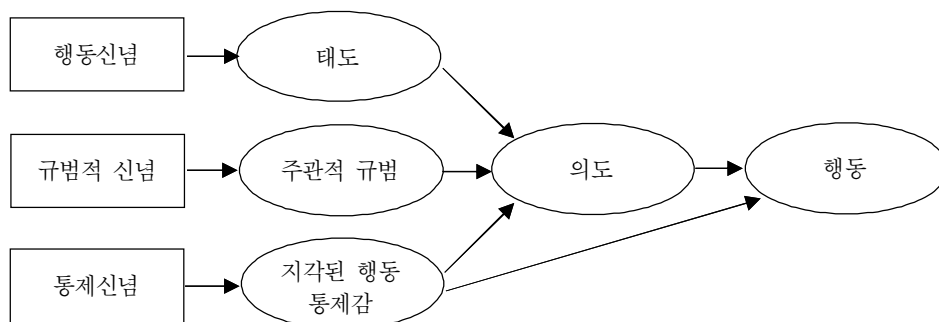


그림 1. 계획행동이론(Ajzen, 1991)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이 단순한 모형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는 지를 검증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평가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 수행을 결정하는 근접 요인은 행동하려는 의도이며 의도란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 계획 또는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동기수준으로 본다(Ajzen, 1991, 2002). 계획행동이론의 구성변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의도, 행동이다.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해당되는 행동에 대한 태도, 둘째,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의 주관적 규범, 셋째,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다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 행동의 실행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개인들이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있다(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2004).

추가된 변인인 기회는 진로정보탐색과 관련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실제 통제를 확인하고자 추가되었다. 김교현(2002)은 기회라는 요인이 특정 대상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너무나 자명한 성분이어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시대와 상황 혹은 하위문화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록 김교현(2002)의 이러한 기회에 대한 강조가 게임행동이나 흡연 및 음주 행동과 같은 중독 행동에 대해 주장이지만 진로정보탐색의 수행에서도 물리적 공간과 시

간 및 행동 대상, 경제적 자원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변인인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았느냐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진로정보탐색행동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추가되었다. 결국,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은 실질적인 수행조건과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 구인이 되어 계획행동이론의 청소년 진로행동 적용과 예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Wanberg 등(2005)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로정보탐색행동과 같은 직업 및 진로행동관련 연구에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미 직업탐색에 관한 연구(van Hooft, Born, Taris, van der Flier, & Blonk, 2004; van Ryn & Vinokur, 1992)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둘째,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을 이끄는 동기요소뿐 아니라 지각된 행동통제까지도 설명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계획행동의 구성개념들은 종단측정이 가능한 변인이기 때문에(Chang, Piliavin, & Callero, 1988) 시간에 따른 직업탐색에 관한 구직자의 의도,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van Hooft 등(2004), van Hooft, Born, Taris와 Van der Flier(2004), Wanberg 등(2005), van Hooft 등(2005), Song 등(2006)은 성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들의 구직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진로행동과 청소년의 진로행동은 발달단계상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직업탐색행동이나 구직행동에 대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했을 때, 진로정보탐색행동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과 과정에서 작용하는 태도 및 동기, 통제감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이 적용된 연구의 첫 번째 연구는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인간지향직업과 행동지향직업에 대해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Giles와 Rea(1999)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인간지향직업에 대한 의도가 27%의 변량을 보여 여학생(76%)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고 자기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행동지향 직업에 대한 의도가 71%의 변량을 보여 남학생(71%)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기효능감도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간지향직업에서는 여학생의 의도가 많았으나 행동지향직업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러한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이 적용된 연구에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을 검증한 Millar와 Shevlin(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6주간 간격으로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계획행동이론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정보를 탐색하려는 행동 의도는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변인인 과거행동에 주로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도 다소 영향 받았다. Shevlin과 Millar(2006)는 계획행동이론을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적용하여 종단적 성장을 예측하였다. 32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성장곡선모형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계획행동이론의 행동 의도는 절편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행동이론이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계획행동이론에 의해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계획행동이론의 이론 변수(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의도)와 추가된 변수(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는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을 예측하는가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총 9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을 임의 표집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실제 진로정보탐색행동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는 1차와 2차로 실시되어 1차에서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 기회 및 진로정체감을 조사하였고 2차에는 동일 대상자에게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조사하였다.

1차 실시는 총 1,260부가 실시되었으며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된 자료를 제외시켜 총 1,103부가 1차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개월 후 조사된 2차 실시에서는 1차 실시와 동일한 총 1,103명에게 실시하였다. 2차 실

표 1. 연구 대상의 현황 단위: 명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자	124(31.3%)	272(68.7%)	396(100.0%)
여자	286(44.1%)	362(55.9%)	648(100.0%)
전체	410(39.3%)	634(60.7%)	1,044(100.0%)

시에서는 1차 실시 후 전학 및 전입, 조사 당일(1차 실시 혹은 2차 실시) 결석으로 인원변동이 있어 두 차례 실시 모두에 응답한 학생들만 자료로 포함시키고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1,044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교급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방법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의 유형을 조사하여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 타당화 작업을 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중·고등학교 학생 1,260명에 1차 조사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약 2개월의 여름방학 후 동일 연구대상자에게 수행한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조사하였다. 1차, 2차에 걸쳐 수집된 1,044명의 데이터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문항 개발

구성요인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유형을 조사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로정체감을 제외한

예측모형의 변인들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 (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진로정보탐색행동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응답 조사를 하였고 기존의 관련도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120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대학의 전공 선택이나 진로결정을 위해 행한 진로정보수집 방법을 자유응답하게 하여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관련 결정을 마친 학생들로 비교적 최근에 진로정보수집활동을 활발히 수행했고 그 활동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은 이미 중·고등학교과정을 거쳤으므로 다양한 진로정보탐색행동의 경험이 있으며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에 대한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 진로관련 기존 도구를 조사하여 진로정보탐색행동과 관련된 문항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과 가장 근접한 개념인 진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는 현재 국내에서는 박완성(2002)의 고등학생용 진로준비행동만 있었고 대부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분석된 도구들은 (a)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rvey), (b) 박완성(2002)의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c)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 Checklist), (d) Millar(1994)의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ory

behavior questionnaire)이다.

자유응답 조사와 기존의 관련도구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진로정보탐색행동으로 공통된 6가지의 활동범주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으로 선정된 6가지 활동은 (a) 전공이나 직업에 관한 서적, 팜플릿 등 자료 읽기(reading), (b) 자기 분석, 심리검사나 상담 등 자기이해 활동(self-understanding), (c) 전공이나 직업에 관련된 기관 방문(visiting), (d) 흥미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습득 (master skill), (e) 부모, 교사, 친구, 선배 등과의 진로에 대한 대화(talking about careers), (f) 전공이나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터넷 검색(web surfing)이다.

예비 문항개발은 진로정보탐색행동 6문항,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7문항, 주관적 규범 9문항, 지각된 행동통제감 6문항, 기회 7문항으로 총 45문항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문항을 최종선정하고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45개의 문항들의 표현이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항표현이 적절한지를 전문가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는 총 3인으로 모두 청소년상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박사 학위와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진로 및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자이다. 전문가의 평정에서 ‘하’에 하나라도 평정된 문항은 삭제하고 2인 이상 ‘중’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연구자가 논의한 후 삭제를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은 총 7문항이며 전문가 평정에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예비문항은 총 38문항이었다.

또한 개발된 문항들을 관련 척도들과 상관 분석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진로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F: Taylor & Betz, 1983)가 개발한 척도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관 관계를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분석결과를 통해 진로관련 개념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수행의도, 기회, 행동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수행의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가 많고 활발히 수행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 미결정수준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r = -.32, p < .01$), 행동 의도($r = -.07, p < .05$), 기회($r = -.20, p < .01$), 행동($r = -.15,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행동 의도, 기회가 없을수록 그리고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효능감과 모든 정적 상관이 나타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 수행의도, 기회가 있을수록 그리고 진로정보탐색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의사결정에서 목표선택, 직업정보습득, 문제해결, 미래계획 설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진로정보탐색행동,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문항들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비 조사

서울과 수도권의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총 2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없이 작성된 자료를 제외시켜 총 296명의 응답이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예비 검사에서는 각 문항의 내적 신뢰도 분석을 통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지 않은 문항은 삭제되었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적 신뢰도가 전체 내적 신뢰도보다 낮은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5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문항으로 32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질문지는 여름방학 직전인 1학기말에 1차 설문지 실시되었다. 1차 설문지는 총 1,260명에게 실시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25분 정도였다. 여름방학을 포함한 약 2개월 후인 2학기 초에 동일 대상자에게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예측모형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2차 설문지는 1,103명에게 실시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10분 정도였다.

여름방학기간을 1차 설문과 2차 설문조사 간격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학기 중에는 각 학교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여 진로정보탐색행동이 최대한 본인의 의도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진로정보탐색행동이 실제 수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있기 때

문에(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행동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측정도구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 및 수행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전공이나 직업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접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인 진로정보는 크게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등에 대한 자기정보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조건,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정보는 직업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로정보의 유형은 서적이거나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는 유형자료 뿐 아니라 자신의 흥미에 대한 생각, 중요 인물과의 대화와 같은 무형자료까지 포함한다. 진로정보탐색행동은 (a) 전공이나 직업에 관한 서적, 팸플릿 등 자료 읽기(reading), (b) 자기분석, 심리검사나 상담 등 자기이해 활동(self-understanding), (c) 전공이나 직업에 관련된 기관 방문(visiting), (d) 흥미 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습득(master skill), (e) 부모, 교사, 친구, 선배 등과의 진로에 대한 대화(talking about careers), (f) 전공이나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터넷 검색(web surfing)의 6가지 활동으로 본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는 6가지 진로정보탐색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영향받으며 이들 변인들과 행동간을 매개한다.

1차 조사에서는 앞으로 6가지 진로정보탐색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는지,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를 측정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6가지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지난 2개월 동안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측정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 및 수행은 모두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 있거나 지난 2개월 동안 활발한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의 신뢰도(Cronbach α)는 의도를 측정한 1차 조사에서는 .75, 2개월 동안의 수행을 측정한 2차 조사에서는 .7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신념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는 총 4문항이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7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 즉 개인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압력을 의미한다. 부모, 교사, 또래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의 진로정보탐색에 관한 신호와 압력으로 규정하는 주관적 규범은 수직적 관계인 부모, 교사, 선배 등(어른들)과 수평적 관계인 또래(친구들)로 나누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는 총 4문항이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신뢰도(Cronbach α)는 .73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지로 정의된다. 만일 개인이 특정 행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통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대상 행동에 대해 높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통제 신념을 약하게 지각하는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낮아 대상 행동에 대해 낮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가질 것이다(차동필, 2005; Montaña & Kasprzyk, 2002).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점수는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자신에게 있다는 통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총 4문항이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70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기회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접근가능성과 접근기회를 의미한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회를 인적 및 물적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시간기회로 포함시켰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기회는 6가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응되는 6개의 문항에 시간 기회에 대한 문항을 추가되어 총 7문항이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의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췄느냐를 의미한다. 직업은 곧 정체감의 표현이며, 직업은 정체감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탐색 및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olland, 1997).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척도로 개인이 지닌 삶의 목적과 자신의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으로 진로정체감을 측정한다. 진로정체감척도는 “그렇다”, “아니다”에 응답한 수를 세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봉환(1997)의 연구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점수가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어 의사결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선택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

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반면 진로정체감 점수가 낮을수록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진로선택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허자영, 1996).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89의 Cronbach α 를 보였다.

분석방법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 추가 변인으로 기회와 진로정체감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시켰다. 예측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이고 매개변수는 진로정보탐색행동의도와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종속변수는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이다. 또한 모형에서 이론변수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이며 측정변수는 이론변수의 각 문항과 진로정체감이다. Ajzen의 계획행동이론과 같이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분석하였고 의도와 진로정체감, 기회가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을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모형검증은 최근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증가되고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비실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 가설, 혹은 명제를 검증할 때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정과 예측을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의 질을 평가하고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연

하고 강력한 분석방법이다(배병렬, 2000).

홍세희(2006)는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 표본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모형의 적합도가 달라진다면 모형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 둘째, 적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해야 한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선택의 고려 조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 중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절대적합지수이자 최근 가장 추천되고 있는(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간명적합지수인 PNFI(Parsimonious Normed-of-Fit Index) 등을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모형검증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서 전체 연구대상자(N=1,044)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주요변인간 상관분석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예측모형내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 표준편차

구분	전체(N=1,044)	
	M	SD
태도	14.53	1.77
주관적 규범	10.27	2.58
지각된 행동통제감	11.35	2.36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	15.72	4.05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12.12	3.54
진로정체감	45.85	10.89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	13.62	3.56

각 구성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와 진로정체감,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진로정체감을 제외하고 모두 변인간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r=.30, p<.01$), 주관적 규범($r=.34, p<.01$), 지각된 행동통제감($r=.18,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2개월 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r=.18, p<.01$), 주관적 규범($r=.21, p<.01$), 지각된 행동통제감($r=.12, p<.01$),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r=.37, p<.01$), 진로정체감($r=.1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예측모형 검증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측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표 3. 주요변인간 상관

N=1,044

구분	1	2	3	4	5	6
1. 태도	1.00					
2. 주관적 규범	.33**	1.00				
3. 지각된 행동통제감	.12**	.09**	1.00			
4.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	.30**	.34**	.18**	1.00		
5.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17**	.14**	.31**	.29**	1.00	
6. 진로정체감	-.05	-.03	.35**	.07*	.24**	1.00
7.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	.18**	.21**	.12**	.37**	.53**	.16**

* $p < .05$ ** $p < .01$

표 4. 예측모형의 적합 지수

	χ^2	df	χ^2/df	p	RMSEA(90% CI)	CFI	TLI	PNFI
예측모형	2216.316	455	4.871	.000	.061(.058-.063)	.821	.805	.720

같이 $\chi^2=2216.316$, $\chi^2/df=4.871$, $p=.000$ 이며, RMSEA=.061(.058-.063, 90% CI), CFI=.821, TLI=.805, PNFI=.720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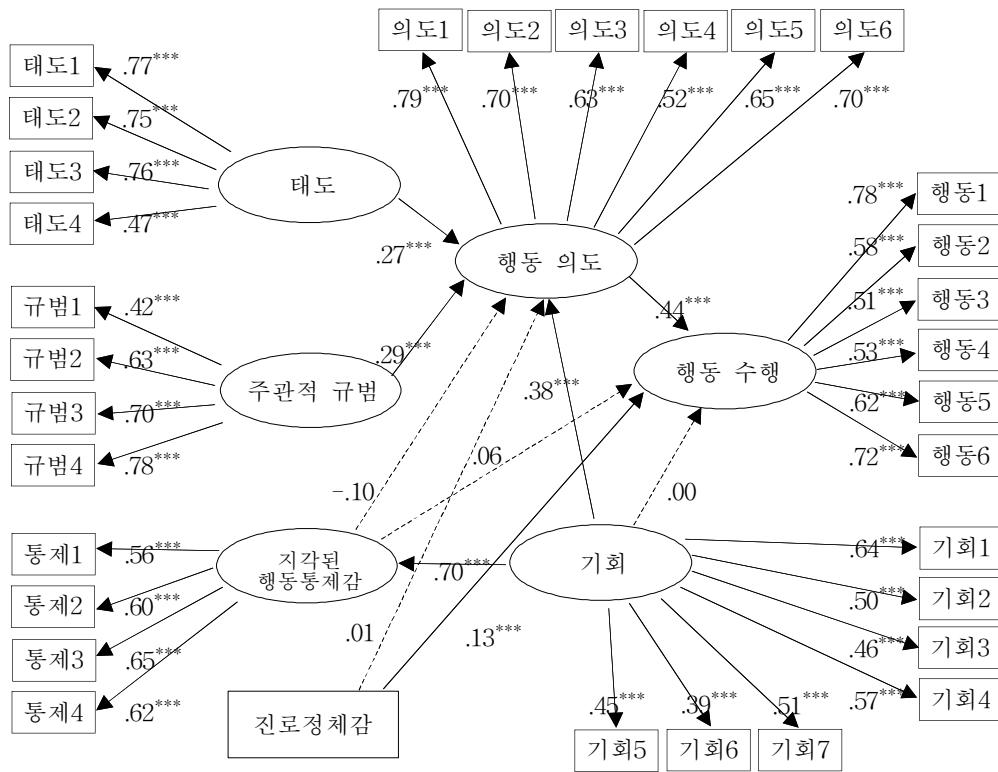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TLI 지수는 .9보다 작아 양호하지는 않았으나 RMSEA는 .06에 근접하고 PNFI도 .6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만 χ^2 통계량을 제외한 어느 적합도 지수도 통계적 검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적합도 지수들이 제공하는 기준값을 절대적 검증치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연구자가 내린다(배병렬, 2000)라는 제안을 참조하여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측모형은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측모형의 경로는 진로정보탐색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행동 수행, 기회와 행동 수행 그리고 진로정체감과 의도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p < .001$).

먼저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beta=.27$), 주관적 규범($\beta=.29$),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beta=.38$)와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p < .001$). 즉,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중요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될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기회가 많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계획행동이론의 모형과는 달리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와 행동 수행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beta=.70$)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p < .001$). 즉,



*** $p < .001$

그림 2. 예측모형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기회가 많을수록 진로 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통제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은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beta = .44$), 진로정체감($\beta = .13$)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p < .001$). 즉,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많을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더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진로정체감이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전체 효과

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와 표 6과 같이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는 지각된 행동통제감($\beta = .705$)에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의도에는 정적인 직접효과($\beta = .375$)와 부적인 간접효과($\beta = -.055$)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정적 직접효과($\beta = .181$)를 나타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에는 정적인 직접효과($\beta = .011$)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직접효과($\beta = .134$)와 간접효과($\beta = .005$)를 나타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beta = -.078$)에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정적인 직접효과($\beta = .057$)

표 5. 예측모형의 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 R.	p
지각된 행동통제감 ← 기회	.648	.705	.056	11.648	.000
의도 ← 태도	.447	.273	.058	7.692	.000
의도 ← 주관적 규범	.586	.285	.085	6.857	.000
의도 ← 지각된 행동통제감	-.103	-.078	.087	-1.178	.239
의도 ← 기회	.456	.375	.083	5.496	.000
의도 ← 진로정체감	.001	.011	.002	.367	.728
행동수행 ← 의도	.474	.438	.044	10.845	.000
행동수행 ← 진로정체감	.009	.134	.002	4.255	.000
행동수행 ← 지각된 행동통제감	.081	.057	.095	.860	.390
행동수행 ← 기회	.000	.000	.090	.001	.999

표 6. 예측모형의 변인별 영향력

		기회	진로 정체감	지각된 행동 통제감	주관적 규범	태도	의도	행동 수행
지각된 행동 통제감	전체효과	.705	.000	.000	.000	.000	.000	.000
	직접효과	.705	.000	.000	.000	.000	.000	.000
	간접효과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의도	전체효과	.320	.011	-.078	.285	.273	.000	.000
	직접효과	.375	.011	-.078	.285	.273	.000	.000
	간접효과	-.055	.000	.000	.000	.000	.000	.000
행동 수행	전체효과	.181	.139	.023	.125	.120	.438	.000
	직접효과	.000	.134	.057	.000	.000	.438	.000
	간접효과	.181	.005	-.034	.125	.120	.000	.000

와 부적인 간접효과($\beta=-.034$)를 나타냈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beta=.285$)에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정적인 간접효과($\beta=.125$)를 보였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beta=.273$)에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정적인 간접효과($\beta=.120$)를 나타냈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정적인 직접효과($\beta=.438$)를 나타냈다.

결 과

본 연구는 다양한 인간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적 틀인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을 추가하여 행동수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유형을 조사하여 문항으로 개발하였고 계획행동이론의 구성개념인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고 연구자가 예측모형에 추가한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을 개발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총 9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1차 실시는 총 1,260부가 실시되었고 2개월 후 조사된 2차 실시에서는 1차 실시와 동일한 대상자 총 1,044명에게 실시하였다. 1차와 2차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로 연구자가 설정한 예측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은 비실험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인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정체감과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간에만 유의한 상관이나

타나지 않았고 그 외의 변인들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기회, 진로정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호의적일수록, 부모, 교사,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이 많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진로정보탐색행동의 기회가 많고 적절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성립되어 있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 기회, 진로정체감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호의적일수록, 부모, 교사,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이 많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의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진로정보탐색행동의 기회가 많고 적절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성립되어 있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계획행동이론의 모형상 경로를 유지한 채 진로정체감과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를 추가한 모형이 2개월 후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예측모형에서 이론변수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이며 측정변수는 이론변수의 각 문항과 진로정체감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예측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모형의 경로들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 기회와 진로탐색행동 수행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p < .001$). 따라서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중요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될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기회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은 의도 및 진로정체감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진로정보탐색행동 의도가 많을수록,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정보탐색행동을 더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기회에 의해 설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진로정보탐색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의도는 그 행동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호의적인 평가를 가지고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중요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되며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다양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질 때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2개월 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 진로정체감에 의해 설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것은 진로정보탐색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의도가 있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같은 내적 조건이 형성되고 다양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질 때이며 실제 진로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것은 진로정보탐색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의도와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라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실제 행동에 앞서 심리내적 성숙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게 된다. 따라서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먼저 안정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도록 하며 청소년들 스스로 진로탐색과 선택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기회가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의도에 영향을 주는 점도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즉,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장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실정에 옮기는 전 단계에서 중요한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의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서 단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내적 성숙이나 준비도,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jzen의 계획행동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의도와 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의도와 행동 수행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예측모형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에서도 선행연구(Armitage & Conner, 2001; Hausenblas, Carron, & Mack, 1997)와 달리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의도와 행동 수행과 상관관계가 오히려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Ajzen(1991)은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감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은 적용 상황과 예측대상 행동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의지적 통제가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의도만으로도 해당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행동에 대한 의지적 통제가 어려워질수록 행동의도의 설명력은 낮아지고 지각된 행동 통제감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은 개인의 의지적 통제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을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적용한 Millar와 Shevlin(200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보아 자기탐색과 환경탐색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한 Blustein(1989)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Millar와 Shevlin(2003)은 이러한 결과를 일부분 진로발달단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진로발달단계의 초기단계인 청소년기이 지각하는 통제

감은 다소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통제감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라는 것이 아직 행동으로 수행되지 않은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에서 경험하게 될 곤란도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에 의해 직접효과($\beta=.73, p<.001$)가 가지는 점을 보면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아직 활용되지 않은 기회에 대한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추가된 변인인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는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 수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를 탐색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도 청소년에게 스스로 탐색할 의도가 생기지 않은 한 실제로 진로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정보탐색행동의 기회는 청소년에게는 외적 환경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은 외적 환경조건보다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의도와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들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동 수행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이 문제없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는

견해(조은주, 2001)에서 보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를 실제 수행에 옮기는 일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진로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의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정체감이 진로정보탐색행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우회적으로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과거 경험의 효과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의 진로정보탐색행동 경험이 이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임의 표집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정보탐색행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실업계 고등학생은 표집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측면에서 경제수준이나 거주지역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은 발달적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구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에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 변인을 추가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예측변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적합도 지수의 일부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된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와 진로정체감 외의 관련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정보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모형 연구에서 과거의 행동경험, 집단주의의 동양문화를 고려한 집단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대치하는 자기효능감 등이 추후연구에서 고려할 필요한 있는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은 진로정체감을 제외하고 모두 본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표준화된 척도는 아니다. 따라서 측정문항에 대한 추가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로정보탐색행동 척도의 개발과정에서 중학생의 진로정보탐색행동에 대한 탐색적 자료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결과 해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간의 2개월 간격을 둔 연구이다. 충분한 진로정보탐색행동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최대한의 영향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의지와 의도에 의해서만 진로정보탐색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 2개월의 여름방학을 시간간격으로 두었으나 연구 대상자 개인의 관련 활동내용을 탐색하지 못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의 발달이 2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간간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증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계획행동이론이 적용된 예측모형이 청소년의 진로 사안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진로발달단계에서 성장기와 탐색기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이 적용된 예측모형의 설명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선중 (2002). 흡연 및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대안모형의 비교.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선중, 김교현 (2004). 인터넷 게임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 계획된 행동이론의 대안모형 탐색. 학생생활연구, 30, 43-56.
-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159-179.
- 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2004).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
- 김명소, 한영석 (2001). 합리적 행위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온라인 구매행동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17-32.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래 (2004). 흡연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모형의 개발: 건강 신념과 계획된 행동 모형의 비교를 통한 대안적 모형의 탐색.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 (2005). 운동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과 변화의 단계 및 과정의 통합.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6(2), 205-221.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0).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대경.
-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2001). 중년여성의 운동 예측모형 구축: 계획된 행위이론의 확장. 성인간호학회지, 13(4), 610-619.
- 이혜원 (2005). 캠페인 메시지 유형과 관여도가 남자 대학생의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계획적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장선숙 (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2), 161-174.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연옥 (1994). 군흡연자의 금연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동필 (2005). 폭음행위 이해: 계획행동 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보, 49(3), 346-390.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애착간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

- 사학위논문.
- 최동성 (2003). 인터넷을 통한 자연휴양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계획행동이론의 적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자영, 김경자 (2003).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14(4), 89-10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6). 상담심리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방법론. 동계학술연수 교재. 한국상담심리학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17-499.
- Arnold, J., Loan-Clarke, J., Coombs, C., Wilknsn, A., Park, J., & Preston, D. (2006). How well ca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ccount for occupational inten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3) 374-390.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13 - 428.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Charng, H., Piliavin, J. A., & Callero, P. L. (1988). Role identity and reasoned action in the prediction of repeated behaviou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303-317.
- Crites, J. O. (1976). Career counsel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2-11.
- Davis, L. E., Ajzen, I., Saunders, J., & Williams, T. (2002). The decision of african american student to complete high school: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4), 810-819.
- Doll, J., & Ajzen, I. (1992). Accessibility and stability of predictor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754-765.
- Dreher, E., & Dreher, M. (1985). Wahrnehmung and Bewältigung von Entwicklungsaufgaben in Juendalter: Fragen, Ergebnisse und Hypothesen zum Konzept einer Entwicklungs- und Pädagogischen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Perception of and coping with adolescent developmental tasks...]. In R. Oerter (Hrsg.), *Lebensbewältigung in Juendalter {Coping in adolescence}* (S. 30-61). Weinheim: VCH Verlagsgesellschaft.
- Giles, M., & Rea, A. (1999). Career self-efficacy: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Occupational and*

- Organization*, 72(3), 393-396.
- Harakeh, Z. M. A., Scholte, H. J., Vermulst, A. A., de Vries, H., & Engels, R. C. (2004). Parental factors and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eventive Medicine*, 39, 951-961.
- Hartung, P. J. (1996). Work illustrated: attending to visual images in career information material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234 - 241.
- Hausenblas, H. A., Carron, A. V., & Mack, D. (1997). Applicati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in exercise: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9, 47-62.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I., Daiger, D. C., & Power,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illeen, J., & Kidd, J. M. (1991). *Learning outcomes of guidance: A review of research*. Research Paper No. 85, Sheffield: Employment Department.
- Krumboltz, J. D., & Schroeder, W. W. (1965). Promoting career planning through reinforcement and model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4, 19-26.
- Millar, R. (1994). *Client and careers officer perceptions of career guidance and their relationships to models and outcomes*. Unpublished DPhil thesis, University of Ulster at Magee, Northern Ireland.
- Millar, R., & Shevlin, M. (2003). Predicting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school pupil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26-42.
- Moan, I. S., & Rise, J. (2005). Quitting smoking: applying an extended ver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intention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0(1), 39-68.
- Montaño, D. E., & Kasprzyk, D. (2002).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Glanz, K., Rimer, B. K. & Lewis, F. M.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pp.67-9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oreno, M. L. R., & Taveira, M. C. (2000, October). Guidance theory and practice: The status of career exploration. In B. Jenschke (Chair), *Guidance for education, career and employment: New challenge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ocational Guida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Rhodes, R. E., & Courneya, K. S. (2004). Differentiating motivation and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sychology, Health & Medicine*, 9(2), 205-215.
- Payne, N., Jones, F., & Harris, P. R. (2005). The impact of job strain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 investigation of exercise and healthy eating.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 10, 115-131.
- Rive, A., & Sheeran, P. (2003).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18*(5), 567-583.
- Shapiro, D., & Watson, A. (2000).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nduce problem solving in schools. *Negotiation Journal, 16*(2), 183-190.
- Shevlin, M., & Millar, R. (2006). Career education: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to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41-153.
- Song, Z., Wanberg, C., Niu, X., & Xie, Y. (2006). Action-state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study of job search in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490-503.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Super, D. E. (1975).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van Hoof, E. A. J., Born, M. Ph., Taris, T. W., & Van der Flier, H. (2004). Job search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nority-majority group differenc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366-390.
- van Hoof, E. A. J., Born, M. Ph., Taris, T. W., Van der Flier, H., & Blonk, R. W. B. (2004). Predictors of job search behavior among 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Personnel Psychology, 57*(1), 25-59.
- van Hoof, E. A. J., Born, M. Ph., Taris, T. W., Van der Flier, H., & Blonk, R. W. B. (2005). Bridging the gap between intentions and behavior: Implementation intentions, action control,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238-256.
- van Ryn, M., & Vinokur, A. D. (1992). How did it work? An examination of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 intervention for the unemployed promoted job-search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577-597.
- Wanberg, C., Glomb, T., M., Song, Z., & Sorenson, S. (2005). Job-search persistence during unemployment: a 10-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3), 411-430.

원 고 접 수 일 : 2008. 3. 7
수정원고접수일 : 2008. 8. 6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The Prediction of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ae-Chang Lee

Mee-Jin Park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to test a structural model of the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A hypothesis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n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human behavior. The model consisted of five theoretical variables of the TPB together with additional variables. In conclusion, the predictive model applied by TPB explained the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dolescents. The verification of the predictive model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dicated a significant influence by the both attitudes and chance. In addition, the intention of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nd career identity predicted the nature of the self-reporte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observed over the 2 month period of this study.

Key words : adolescent career,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